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계속되는 홍해작전 행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되는 새벽기도회와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들



지난 6월 6일에 시작한 홍해작전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사회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의 참회와 결심과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예배실을 메우고 있다. 이 기간만이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겠노라고 멀리서부터 오는 성도들, 심지어 타교회 성도들의 발길로 새벽마다 교회 앞 대로변이 번잡해진다.

또한 각 부 교회학교와 선교회, 전도회, 다락방 등이 이번 기간을 통해 조금 더 새로와질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을 통해 간담회와 친교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쉼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다락방장들은 홍해작전 기간 동안 수요일, II부 예배 후에 행하는 특별 훈련을 통해 다락방 활동의 현주소를 살피고 반성과 다락방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히 당회원들은 홍해작전 불기둥 모임의 일환으로 교회의 현안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7시(금) 불광동 한국 기독교 수양관에서 모여 철야기도회를 가지기로 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제 아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기 원하는 '94홍해작전은 새벽기도회와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 등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19일(주일) 찬양예배에 승전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진군을 계속한다.

금식일 선포 - 17일(금) 해 있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기 위한 홍해작전을 현충일과 6.25사변 기념일이 있는 매년 6월에 시작하는 것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 기억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다.

홍해작전 참모회의에서는 오는 17일(금)을 금식일로 선포하고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며 홍해작전의 7대 기도제목과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했다.



◆ 남은 진군 - 주력교구와 불기둥·구름기둥 모임 ◆

일자	주력교구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
12일(주일)	총동원의 날	
13일(월)	1,2교구	오후 8시 ~ 10시 / 중동부, 고등부, 요한·베드로·바울 5, 6지회
14일(화)	3,4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마리아·루디아 5, 6지회
15일(수)	5,6교구	수요일, II부 예배 후 / 다락방장 훈련
16일(목)	7,8교구	오후 8시 ~ 10시 / 청년부, 대학부, 사랑부, 새가족부 모세전도회
17일(금)	9,10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에스더 전도회 오후 7시 / 당회원
18일(토)	11,12교구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한나여전도회
19일(주일)	총동원의 날	오후 5시 / 승전감사예배

19일, 26일 공동의회 소집

- 안수집사, 권사 선거 -

우리 교회 당회는 공동의회를 오는 19일(주일)과 26일(주일)에 열기로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해석서 제 58조 3항에 의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할 집사 및 권사후보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당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준하여 추천한 집사는 40세 이상, 권사는 50세 이상으로 연령만 조정하였다고 한다.

19일에는 안수 집사 30명, 26일에는 권사 30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는 각각 15배가 되는 45명씩을 추천하였다.

우리 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창립 당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장로, 집사, 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하되 예배당을 지어 헌당식을 할 때까지는 정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된 자로 타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아 시무하시던 분들 중 우리교회 권사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동의회 동의를 얻어 30명 이외의 수로 임직키로 하였다.

공동의회 안전에 따라 먼저 안수집사 후보를 발표하고 권사후보 명단은 다음 주에 본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집사후보자 명단은 3면 참조)

창세기
강해



함의 후예들

(창세기 10장 6 ~ 20절)

이 중 윤 목사

1. 함의 후손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또 구스는 여섯 명의 아들을, 미스라임은 일곱명, 가나안은 열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 각각의 종족의 이름과 지명과 역사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함의 후예들이 어느 지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함의 큰 아들은 구스인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의 조상이 바로 구스입니다. 이들이 유브라테까지 갔다고 했으니(7 ~ 12절) 아프리카에서 중동지방 북쪽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미스라임은 아프리카 북쪽 지방 즉 애굽인의 조상입니다.

함의 셋째 들 붓은 리비아 땅으로 퍼져 나가서 북아프리카 지역과 애굽 서쪽 지역에 사는 민족이 붓의 후예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 당하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사람은 어느 족속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10장에서 몇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헛을 낳고"(15절)라는 구절에서 헛이라는 이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은 영어로 히타이트(Hittite)로 읽혀집니다. 세계사를 보면 헛 제국이 나오는데 BC 2000년 경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부근에 존재했던 제국으로서 큰 나라였습니다. 이 제국은 팔백년간 존재하다가 멸망했는데 그 후 흩어진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터키를 통해 동쪽으로 도망을 쳐서 중국까지 왔다는 설입니다. 헛은 히타에(Khitae)에서 다시 'K'목음이 발음되어 '카테이'로 변음이 되는데 이는 중국을 이릅니다. 지금도 '카테이 퍼시픽'하면 중국 비행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학적인 고찰만으로도 헛 족속이 중국까지 온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영백과 사전을 보면 문화사적으로도 헛 족속의 문화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몽고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높인 신발, 머리를 돼지꼬리처럼 위로 올린 것, 말

을 가축으로 사용한 것 등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언어학적인 분류에서 몽골리안입니다.

둘째, 가나안의 여덟번째 아들은 신입니다. 중동지방의 시나이 반도, 즉 시내산이 있는 곳을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마 거기서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 이름의 성(姓)에는 '싱'이 많아 마치 우리나라 김씨와도 같습니다. 중국에도 '신양', '씨안후' 등 '신'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중국을 일컫는 '지나'는 팔레이지아어로 치나(Tchina)에서 변형된 것이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차이나(China)라고 해서 오늘의 중국을 일컫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차이나를 '시노(Sin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노는 중국의 옛 이름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아들 신이 퍼져나간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족과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계보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스의 후예 중에 '니므롯'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8 ~ 12절). 그는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으며 영걸이며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10절). 역대상 1장 10절에도 영걸로 언급된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구절을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저주받음이 조상의 탓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나머지 자기를 위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유브라테 계곡에 있는 모든 족속을 통합시키는 일을 니므롯이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기를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2. 구원받은 후예들

헛 족속이 중국까지 왔으니 중국인은 가나안의 후예임이 틀림없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민족은 누구의 후예일까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썬의 후손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야벳도 함도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든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갈3:13).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주는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 기쁨으로 충성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악 투성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어떠하든지, 누구의 후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의인으로 칭하시고 자녀삼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검불인생

뿌리 없는 검불은 바람에 건디지를 못하고 풍비박산이 되어 날아간다. 소리없는 미풍에도 얹치락뒤치락하는 검불은 자체의 중량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검불처럼 경망스러워 가지고는 불어오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고 바위처럼 무게가 있는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피흘리는 악한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죄를 즐기지 아니하는 자, 무엇보다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자가 될때에 폭풍에도 동요치 않고 창수가 나도 뽑히지 않는 귀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술도 없고 무가치한 검불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안에 뿌리를 박고 이웃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며 자신은 보람있는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자.

안수집사 후보자

번호	이름	출생년도	수세년도	봉사부서 및 활동	학력	직업(근무처, 직위)	가족
1	김 영 준	1945	1960	소망부 부감, 찬양대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한국유리 총무부장)	박태희 집사와 2남
2	김 상 철	1947	1964	청년부 부감	대학원 졸	변호사	최원자 집사와 1남 1녀
3	박 두 호	1949	1989	새가족부 부감, 베드로 4 회장 선교의 국내선교국장, 다락방장	고졸	사업(유일특수제지 대표)	모친과 한성옥 집사와 1남 1녀
4	성 준 경	1942	1974	할렐루야 찬양대 부대장, 다락방장, 목회자 세미나 봉사담당	고졸	사업(하주산업 대표)	장낙희 집사와 2남 1녀
5	임 상 헌	1952	1972	찬양대원, 법률상담 담당, 다락방장	대졸	변호사	서희숙 집사와 3녀
6	서 문 석	1947	1969	초등부 부감, 제직회 서기, 다락방장	대졸	공무원(성북구청)	양친과 한춘홍 집사와 2남 1녀
7	김 일 용	1930	1957	모세선교회 회장, 다락방장	대졸	유조선 선장	김옥남 집사와 2남 1녀
8	박 정 선	1945	1978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대학원 졸	교수(단국대)	김남순 집사와 1녀
9	이 복 규	1947	1981	사랑부 부감	대졸	회사원(동부건설 부장)	한명순 집사와 1남 1녀
10	임 훈 규	1942	1959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차량관리부원	대졸	사업(동서종합건설 대표)	정경자 집사와 1남
11	안 의 경	1949	1967	대학부 부감	대학원 졸	교수(안양공전)	모친과 박창희 집사와 2남 1녀
12	이 번 생	1943	1978	선교의 특수선교국장, 바울 6 부회장	대학원 졸	예비역 장성	박경희 집사와 1남 1녀
13	이 완 형	1939	1957	고등부 교사	대학원 졸	교수(한양여전)	박연순 집사와 1남 2녀
14	하 영 수	1943	1978	고등부 부감, 다락방장, 찬양대원	고졸	사업(재중건설(주) 대표)	박정순 집사와 2남
15	황 정 욱	1940	1967	대학부 교사, 다락방장, 찬양대원	대졸	사업(삼흥통운(주) 대표)	주경자 집사와 1남 2녀
16	허 희 철	1947	1965	가브릴 찬양대 지휘, 베드로 1 부회장, 선교의 선교사 지원부장	대졸	사업(희승산업(주) 대표)	이연숙 집사와 2남
17	신 순 우	1940	1985	중등부 교사	대학원 졸	공무원(농수산부 국장)	조은영 집사와 3녀
18	박 동 춘	1943	1973	차량관리부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대원종합(주) 이사)	오정화 집사와 2남 1녀
19	김 세 재	1950	1966	찬양대원, 선교의 해외선교국장	대학원 졸	회사원(한주통산(주) 이사)	이운진 집사와 1남 1녀
20	노 송 성	1943	1986	안내위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대한항공(주) 상무이사)	이영옥 집사와 1남 1녀
21	오 광 한	1950	1968	예배위원, 다락방장	대학원 졸	회사원(부진건설(주) 부장)	이안순 집사와 1남 1녀
22	조 정 식	1951	1970	찬양대원, 선교의 문서선교 부장, 다락방장	고 중퇴	사업(대신에너지 대표)	김영식 집사와 1남 1녀
23	왕 경 래	1939	1982	사랑부 교사, 찬양대원, 다락방장	대졸	공무원(동작세무소)	모친과 김정희 집사와 1남 2녀
24	이 태 상	1943	1962	찬양대원, 다락방장	대졸	사업	김희숙 집사와 1남 1녀
25	이 기 룡	1948	1961	다락방장	대졸	사업(대신용역 대표)	김순애 집사와 1남 1녀
26	한 길 동	1944	1985	차량관리부 차장	고졸	회사원(삼공물산 대리)	박영옥 집사와 1남 1녀
27	홍 성 주	1946	1971	고등부 교사, 선교의 학원선교부장, 다락방장	대졸	교사(동대문 상고)	모친과 여현진 집사와 2녀
28	윤 찬 오	1938	1958	새가족부, 찬양대원, 다락방장, 베드로 2 회장, 목회자 세미나 준비담당	고졸	사업	홍재식 집사와 1남
29	김 영 주	1940	1975	소망부 교사, 바울 1 회장, 찬양대원	대졸	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	이혜순 집사와 1남 2녀
30	김 형 택	1943	1980	찬양대원, 다락방장	대학원 졸	농원경영	윤갑숙 집사와 2남
31	허 찬 우	1949	1965	중등부 부감	대졸	사업(복음건축 대표)	신혜자 집사와 1남 1녀
32	이 관 규	1948	1971	유치부 부감, 베드로 5 회장		사업(대용축산 대표)	이순영 집사와 1남 1녀
33	백 수 남	1949	1965	찬양대원, 초등부 교사	대졸	회사원(주영전설 부장)	김영희 집사와 1남 1녀
34	류 중 관	1944	1975	안내위원, 다락방장	고졸	식품 납품업	진선자 집사와 2남
35	홍 정 선	1941	1958	차량관리부원, 다락방장	고졸	사업(풍천양봉 대표)	강풍자 집사와 2남 1녀
36	권 영 복	1939	1956	새가족부 교사, 바울 5 회장, 다락방장	대졸	사업	이옥녀 집사와 3남
37	박 두 영	1936	1952	고등부 교사, 찬양대원	고졸	사업(화성포장 대표)	전행자 집사와 2남
38	이 계 홍	1950	1979	예배위원, 다락방장, 베드로 3 회장	중졸	식당경영(열빈식당)	성순자 집사와 2남 1녀
39	고 석 창	1944	1981	찬양대원	고졸	공무원(서울시청)	전혜자 집사와 1남 1녀
40	김 인 수	1948	1963	베드로 2 부회장, 회계부원	대학원 수료	해외부동산 개발 고문	이영희 집사와 1남 1녀
41	이 호 연	1948	1972	베드로 2 회장, 회계부원	대졸	회사원(MB상사 전무)	현병애 집사와 2남
42	권 장 철	1943	1983	회계부원, 다락방장	대졸	회사원(한국항공(주) 차장)	최윤정 집사와 1남 1녀
43	신 용 식	1952	1980	찬양대원	대졸	사업(세현(주)대표)	김신영 집사와 2남
44	오 형 철	1939	1986	바울 2 부회장, 찬양대원	대졸	도매업(영일상사 대표)	신동기 집사와 1남 1녀
45	맹 선 재	1932	1948	모세선교회원	대학원 졸	교수(한양대 부총장)	황 혼 집사와 1남 2녀

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행 1:24, 25)

'94 제 3차 학습, 세례식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22일 수요일, 1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한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희망자들은 학습, 세례 문답 신청서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20일(월)의 예비 교육과 21일(화)의 신앙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새가족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각 교구 담당 교역자나 예배위원회 지도인 임진태 목사에게 하면 된다.

대학부, 청년부 돌잔치

교회 설립 당시 「대청부」로 출발하였다가 작년 5월에 독립한 대학부와 청년부가 1주년을 기념하는 돌잔치를 오늘 두 부서 연합으로 대학부실(401호)에서 가지기로 했다. 두 부서의 지도인 김영한 목사와 이만열 전도사의 메시지, 선후배의 대화,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 떡잔치 등으로 회고와 전망, 축하의 순서를 가진다. 흥해작전 기간을 통해 장기결석자와 해당 연령의 미참자들을 찾아 「이삭줍기작전」도 벌이기로 했다.

생활 속의 이야기

새벽 기도의 맛 - 아는 사람만 아는 일

한 정 아 (집사 · 1교구)

“엄마, 내일 새벽에도 꼭 깨워 주셔야 해요” 흥해작전이 시작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세 아이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다. 비록 다음날 새벽 약속을 무색하게 할 망정. 그래도 큰 아이만큼은 열심히어서 동생들에게 본이 되고 누나를 따라해 보려고 간간히 쓰지만 역부족.

지금은 모두 중학생이 되었지만 내가 처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한 때는 아이들이 아직 우유병을 떼지 못했던 1982년 2월 이었다. 년년생인 세 아이와 팔순이 넘는 시어머니, 막 사업을 시작한 남편. 모두가 연약한 나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그 시절,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때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기도의 위력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했고 기도의 열매는 자녀들과의 생활 속에 알차게 영글어 갔다.

십년 넘게 새벽기도의 맛을 보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겪는 나 자신과의 싸움 - 육신을 이기는 일이란 항상 쉽지가 않다. 그러나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약하나마 내 순종의 의지를 합작하면 갖가지 기적적인 생활과 축복 속에 평안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한 상처도 치유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

특별히 해마다 하는 흥해작전은 새벽기도의 별식과도 같아 약해진 내 다리에 새 힘을 주곤 한다. 이 때만이라도 참석하려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밤을 지새다시피 하다가 예배당을 향하여 몰려드는 성도들을 보며 놀라기도 하고 격려를 받는다. 식사해진 기도 생활에 활력을 얻으며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기간이 된다. 삶의 무게를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에 모두 얹고 믿음으로 달리는 생활의 묘미는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흥해작전을 통해 열거할 수 없이 이루어주신 많은 기도의 제복들! 구한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신 주님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죄를 매일 허는 작업에 부지런하게 하시며,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억울함이나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소서!”

새가족환영회

- 때 / 1994년 6월 23일(목) 오후 7시
- 곳 / 유년부실(301호)
- 대상 / 1994년 3월 13일 이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과 인도자
- 주최 / 새가족부

서울주간기도

'94 흥해작전
7대 기도제목

1. 경건, 사랑,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개인과 민족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고치소서
3. 전쟁, 기아,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북한 동포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게 하소서
5. 성경적 윤리관과 가치관이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하소서
6.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소서
7.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교계신문, 일간지 김치세미나 보도

러시아선교에 새 이정표, 한·러 민간 외교에 일익담당

교계신문과 일간지들이 제 5차 김치세미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제 막 문이 열린 러시아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등에 탐구하고 자국복음화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세계복음화로의 길을 열고 복음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가교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속 기도함으로 진정한 결실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창」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목회자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3일(월) ~ 15일(수)까지 수표감리교회에서 교회창립 85주년 기념 집회를 인도한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교회위치

